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자원하는 복된 마음

### (느 11:1-2)

## The Blessed Heart of Those who Volunteer

### (Neh. 11:1-2)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이권이 개입하면 분란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성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도시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느 7:4). 예루살렘 성은 항상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입과 약탈을 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 누군가는 살아야 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If a nation, society, or individual are suddenly privileged in some way, a trouble or conflict will arise. It will be the same in the church.

Jerusalem had been ruined before Nehemiah came there. Thanks to God, the Wall of Jerusalem was rebuilt by the devotion of Nehemiah and the people of Judah. However, in the city of Jerusalem where only a few people lived, it seemed to be filled with feelings of loneliness. At that time, Nehemiah wrote about the atmosphere of the city. “Now the city was large and spacious, but there were few people in it. And the houses had not yet been rebuilt”(Neh. 7:4). The city of Jerusalem was very dangerous because it was always in threat of being invaded and plundered by an outside power. But someone had to live there.

#### 1. 지도자들이 거주하기로 하다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만일 리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회중들은 결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 의무를 다하므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 1. The Leaders were going to settle there

When you read verse 1, the leaders of the people were going to settle in Jerusalem. If the leaders hadn't shown their attitude of devotion to the city,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could never have devoted themselves as well.

It is the leaders' duty to be in full devotion. That's why the position of being a leader is not an easy task to take on. However, because the leaders fulfilled their duty, Nehemiah's reformation was able to be accomplished.

#### 2. 제비 뽑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로 하다

지도자들 외에 또 누군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면 마구잡이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는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잠 16:33).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도 마티아와 요셉 두 사람을 추천한 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티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제비뽑은 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아무도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성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2. Those who cast lots were going to settle there

If people other than the leaders were to settle in Jerusalem, there had to be a way devised to choose them. Now the way they chose was to cast lots. The method of lottery was quite biblical.(Proverbs 16:33) When an apostle was chosen to replace Judah Iscariot, after Matthias and Joseph were recommended, they prayed to God, cast lots, and Matthias was chosen.

However, the point that should be observed carefully is the attitude of the people chosen by lottery after the casting of lots was done. There was not anyone who did not whole heartedly accept their being chosen to live in the city. They silently received God's will and moved into Jerusalem. In the midst of belief putting full trust in God's sovereignty, their attitude of obedience was very wonderful.

#### 3.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기로 하다

지도자들과 제비뽑은 사람 외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너무도 열악하지만 기꺼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렇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 3. Those who volunteered were going to settle

There were a few people who volunteered to live in Jerusalem with the exception of the leaders and those who cast lots. Now, although the situation of Jerusalem was very poor, they too willfully took part in God's work with a readiness to devote themselves. The great work of God becomes easily revealed in the midst of the people who volunteer. God gladly received the devotion that they volunteered to give, not being forced to do so.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고, 제비 뽑힌 자의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원하는 이들의 헌신이 귀합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므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My beloved Christians!

Those who want the peace of the Church and love the Church will work hard for everything to go well. Although the leaders' duty is important in the church, and the duty of those who cast lots is important, the devotion of those who volunteer is more precious than those. Serving the church with a heart to volunteer, I earnestly hope that all of us will receive and enjoy God's blessings and grace in full abundance.

#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 - 추석 연휴를 기쁘고 은혜롭게 맞이하도록 -

추석연휴가 시작되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을 것이고 이번 연휴기간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 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

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순례자 3면에 추석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예배의 모범을 게재하였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연휴가 되도록 하자.

# 2011 사랑의 바자

## 9월 한 달 간 “사랑나눔 A+운동”, 온라인 바자

### 29(목)~30일(금) 2011 사랑의 바자로 소외된 이웃 곁으로 성금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사랑의 우물과기라는 이웃사랑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2011 사랑의 바자위원회는 “사랑 나눔 A+” 캠페인을 통해 바자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대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2011 사랑의 바자는 외형적이고 과시적인 모습의 행사들을 자제하고 온 성도의 정성을 모아 아가페타운 건립과 이웃 사랑을 위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회 교인 기업이 아니어도 본 운동을 지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후원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사랑나눔은 **웃장비우기, 1% 나눔운동, 사랑의 온도계, 10% 나눔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랑 나눔 A+” 캠페인의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웃장비우기** : 웃장을 비우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더 이상 입지 않아 웃장에 방치된 헌 옷을 3점 이상 기증하시는 운동이다. 기증된 의류는 바자 기간 중 재활용 의류로 판매한다. 자원낭비, 환경오염, 폐기비용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에 더하여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던 자원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1% 나눔운동** : 유, 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교인 및 외부 기업, 업소에서 8월 수입 중 일부를 약정하여 기부하시는 취지다. 바자에 동참하고 싶어도 생업으로 인해 그간 바자에 동참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과 기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 나눔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매출규모와 수익등을 감안하여 기부규모를 약정, 참여하게 되며 순례자 공지 등 각종 홍보와 지원을 받게 된다.

**3. 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 (사랑의 온도계)** : 만원 일정액을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는 운동이다. 기부를 통한 나눔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숭고한 행위이며 또한 나눔은 나눌수록 커진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만원이 모여져 이 땅의 장애우들에게 교육을 선물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세워지는 사랑의 기금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사랑의 우물과기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지금 나눔의 사랑의 온도계는 1층로비, 2층 코람데오 앞, 8층식당 입구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4. 10% 나눔운동** : 청소년들의 핸드폰통화료, 각종 게임방 출입비용, 어른들의 외식비용, 택시비 등 교통비, 가정 전기료, 차량 유류비, 여름휴가비용 등을 자제, 절약하여 기부하는 운동이다.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한달 동안 TV나 컴퓨터 사용 등을 절제하고 그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부모들이 일정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 등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독교 생활문화를 유도한다는 의미 또한 크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9]

(문 18) 창6:7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가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짐승들은 무슨 악을 행하였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답)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전에 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알려짐이 없이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설명치 않고 항상 능동적으로 주권을 갖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 약속을 깨뜨린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때 까지 인간의 부패가 심하여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케 됨으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항하여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인법으로 하나님이 마치 눈과 귀와 코를 가지신 것처럼 죄에 대한 그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론 전지하신 분이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견하지 못하시고 놀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간에 대한 반응은 그에 대한 인간의 느낌의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의 변화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의 한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데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23:19) 하였습니다.

(다음주 계속)

# 전도와 양육 특별 금요기도회

## 9월 23일(금), 손현보 목사 초청



9월 23일(금) 금요기도회는 손현보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세계로 교회만의 전도방법과 간증을 나누고자 한다.

손목사는 1993년 제적성도 30명 이던 교회를 10년 만에 3천명으로

‘100배 성장’을 이루었으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란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손현보목사는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리더이며 현재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성경적으로는 이상숭배요,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유교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는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오도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 만나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 예배순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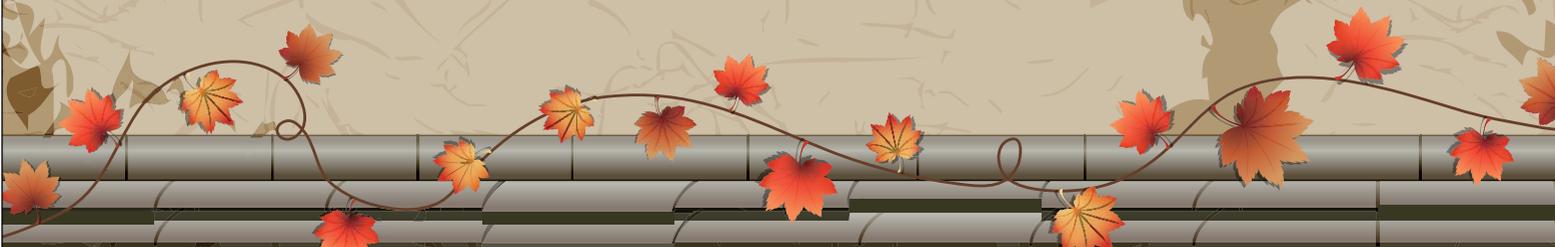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 103편 1-2절	인도자
· 찬송	..... 301장(통일 460장)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2장 16-21절	인도자
· 메시지	..... “추수를 맞는 자의 마땅한 태도”	인도자
· 찬송	..... 559장(통일 305장)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신 부모(혹은 조부모)님께 감사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가을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확장하고 마시고 즐기며 편히 쉬리라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고, 모든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즐기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추수의 계절 가을에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인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며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수의 열매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할 태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롬11:36)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고전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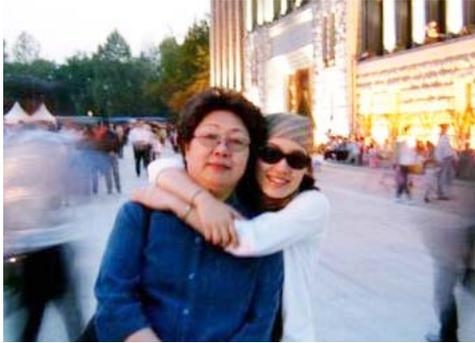
**3.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계에도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후5:7).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6:8)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그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하나님

# 어머니

## 나소정 집사(12교구)



지난 유월, 어머니와 강원도에 위치한 오색그린아드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 설계에 관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들어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며 2박 3일동안 우리 모녀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단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시고 이십여 년 동안 가족을 돌보며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연세 51세 되시던 해였는데, 중년을 바라보는 제가 이제야 헤아려보는 것은, 얼마나 젊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떠나신 빈자리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20여년 만에 다시 교편을 잡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교재를 연구하

고 학교 행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근면성실하신 성품으로 이듬해 우수교사상을 수상하기까지 어머니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는데, 우리 모녀는 밤늦도록 마주앉아 책을 보고 함께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아비를 잃은 슬픔과 새롭게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 가정을 이끄는 가정의 역할을 맡아 많은 것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 어머니를 거쳐갔지만, 어머니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으로 동생과 제게 힘을 불어넣어주셨고,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올해로 어머니는 63세를 맞아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지 않은 교단 생활이었지만 어머니의 퇴임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

니다. 동료 교사들의 진심어린 축복과 안부가 오고갔고 어린 학생들의 정성어린 편지들과 꽃다발들이 그간의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이 날은 제가 소원하던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받아, 어머니는 더 큰 축하 속에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을 여름, 어머니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으며 여직도 학교와 학생들, 동료 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주야로 찬송을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미루어왔던 이비인후과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앞으로 더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한 길을 걸어오신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4일(수)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에 참여한다. 15일(목)석학들과의 성경읽기를 주관한다. 한국연합선교회(KAM)에 단번러100주년 기념대회논문집 10권 출판감사에배 설교를 한다. 16일(금) 문경예스교회 원로목사초청 열린말씀축제에서 설교한다.

- 득남: 1교구 오윤걸 집사 김민아 집사 가정 9월8일(목)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장남 가정)
- 수상: 유신희 성도(시온찬양대원) 고태국 성악콩쿨2위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회(9.11) 제2스데반회(9.18)

■ 금주의 식사: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육군 3사단 진중세례식

9월17일(토) 오후7시 3사단 십자군 교회에서

3사단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9월 17일(토) 오후 7시에 거행되며 우리교회는 참석할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한다. 3사단 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이날 진중세례식에는 200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교회에서는 당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2010년 3사단 진중세례식

## 오카리나 연주단 모집

오카리나 연주단 창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개발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며 찬양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

도는 오영숙 권사가 하며, 모집인원 30명 내외로 하고, 연습시간 매주 1-2시간, 연습실은 추후 교회에서 지정하며 신청은 사무국에 하면 된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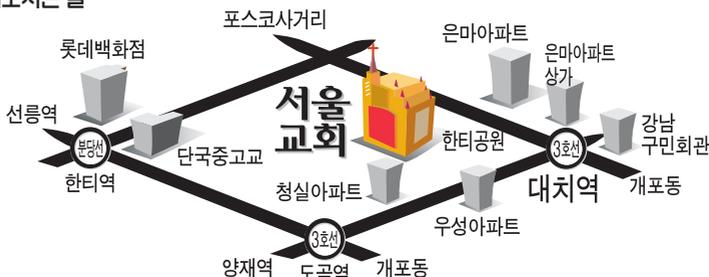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도록
2. 원근각처에 방문하는 성도들을 농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3. 좋은 일기 가운데 모든 교구의 헌신으로 사랑의 바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빈약한 자구제를 위한 풍성한 나눔이 있도록
4. 9월 17일 토요일에 있는 3사단 진중세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비전 2020 사역이 힘있게 전진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